

□ 동래학춤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무형유산 / 전통연행 / 무용 / 민속무용

동래학춤은 동래지방에서 전승되어오는 학춤이다. 주로 정월대보름날 동래야류나 줄다리기를 할 때 추던 춤으로, 어떤 춤꾼이 도포에 갓을 쓰고서 덧배기 춤을 추는 모습이 “학이 춤추는 것과 같다”라고 한데서 학춤이라 이름 붙여졌다.

동래학춤은 의상을 따로 갖추지 않고 일상의 옷인 도포에 갓을 쓰고 바지저고리, 버선과 미투리를 신고 즉흥적으로 춘다. 반주악기는 팽과리와 장구, 징, 북 등의 농악편성으로 되어 있고 장단은 굿거리 장단이다. 춤사위에는 양손을 너울거리는 날아가는 사위, 좌우상하를 바라보는 사위, 왼발은 무릎을 굽혀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은 뒤로 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거나 상하로 가볍게 움직이는 배김새 사위 등이 있다. 구성을 보면, 일반 민속춤과 같이 일정한 순서로 짜여져 있지 않고, 자유분방한 즉흥성과 개인적 멋이 강조 되고 있다. 동래학춤은 자연미와 예술미의 조화가 우아하고 격조 높은 춤사위로 표현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춤이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프로그램 교육 내용

동래학춤은 춤사위에서 풍기는 청초하고 우아한 멋에서 여유만만하고도 고고한 학을 상징적으로 연상시키고 있으며, 너울거리며 좌우활개가 한층 폭이 넓고 역동적이다. 이러한 동래학춤의 기본 춤사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익히도록 하였으며, 단순한 모방과 학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창조성과 즉흥성, 상징성에 초점을 두었다. 덧배기 춤의 특징을 유지함으로써 전통 그대로의 전수만이 아닌 우리들만의 새로운 동래 학춤을 만드는 창작의 과정을 갖도록 하였다.

참고사진



□ 부산농악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무형유산 / 전통연행 / 음악 / 민속음악

부산농악은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일할 때 치는 음악으로 팽과리, 징, 장구, 북과 같은 타악기를 치며 벌이는 음악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농악을 공연하는 목적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보면 당산굿, 마당밧이, 걸립굿, 두레굿, 판굿, 기우제굿, 배굿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경기농악, 영동농악, 호남우도농악, 호남좌도농악, 경남농악, 경북농악으로 갈라진다. 경남농악의 한 종류인 부산농악은 음력 1월 초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농악을 치고 고사를 지내며 복을 빌어주는 걸립굿이 주류를 이룬다. 다른 농악에 비해 느린 4박자로 굿거리장단이 많고 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상모돌리기, 버꾸놀이의 기능이 뛰어나며 특히 4개의 북이 일치되어 북을 안고 넘는 기교가 일품이다.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이어져 온 이농악은 우리민족의 오랜 토속신앙이며, 춤과 장단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민속예술로 보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농악보존협회에서 전승·보급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프로그램 교육 내용

부산농악에 쓰이는 다양한 악기의 장단 및 춤 가락을 익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산농악의 역사와 유래 및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농악의 기본 장단을 익히기 위해 장구의 기본타법, 호흡법, 다드래기 가락과 덧배기 가락을 익힌다.

부산농악의 기본 가락을 익히기 위해 길굿, 맞춤굿, 맞춤굿 넘기는 가락, 짝음 상모가락을 학습하며, 앉은 굿과 판굿 단위의 진풀이와 걸음 및 춤동작을 학습하기 위해서 문굿 가락, 오방진가락, 호호굿 가락 등을 익히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다.

참고사진



□ 다대포후리소리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

무형유산 / 전통연행 / 음악 / 민속음악

다대포후리소리는 해변가에서 멸치잡이 후리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로서 작업의 순서에 따라 그 동작이 곁들여진다. 토속민요의 하나로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부르며, 지방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 질 수가 있다. 다대포후리소리는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다른 여러 사람이 그 노래를 받아 부르는 선후창(先後唱)형식이다. 내용은 그물을 어장으로 옮겨 배에 실으면서 부르는 그물을 배에 싣는 소리, 용왕고사(제사)를 지내며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 고깃배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젓는 소리, 어부들이 양쪽에서 버릿줄(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후리소리, 후리질을 하며 그물을 쪼으면서 부르는 그물터는 소리, 멸치를 저장통에 옮기면서 부르는 가래소리, 가래질을 마친 후 '괘지나칭칭나네'를 부르며 즐기는 풍어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대포후리소리는 이 지역의 특성을 지닌 민요로서 멸치잡이에 소요되는 어구와 작업의 방법을 재현·보존하고 있어 민속적·음악적·문화적 가치가 높다. 현재 다대포후리소리보존회에서 전승·보존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프로그램 교육 내용

다대포후리소리의 당산고사, 그물 싣는 소리, 용왕제, 그물 놓는 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그물 터는 소리, 가래소리, 풍어 소리 등 8개의 과정을 연희라 하여 그 과정에 따른 소리와 동작을 익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대포후리소리의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알아봄으로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후리소리장단을 익히기 전에 기본 장단으로 민요배우기를 통해 좀 더 쉽고 흥미 있는 접근을 시도한다. 또한 후리소리에 쓰이는 도구와 복식을 체험을 통해 배운다.

특히, 다대포후리소리의 8개 과정을 따라 소리와 동작을 익히고 거기에 악기를 더해 한 번 더 반복하여 악기, 소리, 동작의 어우러짐을 느끼며, 즐기면서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참고사진



□ 부산고분도리걸립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무형유산 / 전통연행 / 의식 / 공동체의식

부산고분도리걸립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일대의 옛 지명인 고분도리 지역에서 행해졌던 걸립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 나쁜 일은 물리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제액초복(除厄招福) 또는 벽사진경(辟邪進慶)을 기원했던 풍물굿으로, 복을 빌어준 대가로 쌀이나 돈을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걸립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걸립을 할 때, 1860년경에 세워진 대신동 지역의 당산인 “시약산 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것을 감안 하면 부산 고분도리걸립은 약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민속이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기수, 약사, 잡색 등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마을 당산에 고하는 당산굿을 마치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우물굿을 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대문굿, 성주풀이, 조왕굿, 장독굿, 곳간굿, 정낭굿, 마굿간굿을 마친 다음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올린 후 판굿판에서 한바탕 춤놀이를 펼치는 것으로 마친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은 성주풀이 사설의 세밀한 구성, 타 지역에는 없는 용왕굿 과장의 삽입, 설놀이 가운데 벽구놀이 연희의 음악적 다양성 등 타 지역의 걸립놀이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프로그램 교육 내용

부산고분도리걸립에 쓰이는 다양한 악기의 장단 및 춤사위를 비롯하여 놀이의 형태와 고사덕담의 소리를 익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부산의 무형문화재 속에서 부산고분도리걸립에 대한 역사와 유래와 놀이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놀이에 필요한 기본 장단을 익히기 위해 장단별 호흡 및 악기별 기본 타법을 이해하고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을 학습한다.

부산고분도리걸립의 원형 중 초등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첫째마당의 당산굿과, 우물굿, 둘째마당의 성주굿과 조왕굿, 셋째마당의 용왕굿, 넷째마당의 대동놀이를 중심으로 각 마당의 풍물 가락과 춤사위 등을 기악학습 중심으로, 그리고 고사덕담의 소리는 가창학습 중심으로 놀이를 체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고사덕담의 소리는 원형을 익힌 후 가사를 바꾸어 불러보기를 통해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음악적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참고사진



□ 수영지신밟기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2호

무형유산 / 전통연행 / 놀이 / 세시놀이

수영지신밟기는 250여 년의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며 마을의 안과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수영야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참여 인원은 약사 30명, 잡색 21명이며, 당산풀이, 우물풀이, 인사굿, 마당밟기,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독풀이, 곡간풀이, 정낭풀이, 삼짍풀이, 판놀이, 기소각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락은 단아하면서도 깊이가 있으며, 소리도 타 지역에 비해 시김새가 적어 깨끗한 경상도 메나리조의 소리 길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특히, 모든 의식을 끝내고 마지막에 종이로 만든 기를 태우는 기소각제(旗燒却祭)를 하는데, 이는 그 해 모든 지신밟기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지신밟기에 사용했던 기를 불사르면서 액을 태워 보내는 일종의 송액(送厄)의례로, 제의적 성격을 띤 민간신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성행했던 것도 수영만의 특징이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프로그램 교육 내용

수영지신밟기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고, 배우고, 체험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적으로 재창작해봄으로서 우리 문화를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영지신밟기의 역사와 유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영지신밟기의 사설(歌), 무용(舞), 악기연주(樂)방법을 배워 그 옛날 수영지신밟기가 행해진 모습으로 직접 공연을 해보고, 나아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현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지신밟기를 창작해보도록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구성되었다.

참고사진



□ 수영야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43호

무형유산 / 전통연행 / 연극 / 민속극

수영지신밧기는 250여 년의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며 마을의 안과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수영야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참여 인원은 약사 30명, 잡색 21명이며, 당산풀이, 우물풀이, 인사굿, 마당밧기,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독풀이, 곡간풀이, 정낭풀이, 삼짱풀이, 판놀이, 기소각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락은 단아하면서도 깊이가 있으며, 소리도 타 지역에 비해 시김새가 적어 깨끗한 경상도 메나리조의 소리 길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특히, 모든 의식을 끝내고 마지막에 종이로 만든 기를 태우는 기소각제(旗燒却祭)를 하는데, 이는 그 해 모든 지신밧기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지신밧기에 사용했던 기를 불사르면서 액을 태워 보내는 일종의 송액(送厄)의례로, 제의적 성격을 띤 민간신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성행했던 것도 수영만의 특징이다.

어린이 무형문화재 교실 프로그램 교육 내용

우리나라 고유의 춤사위나 장단에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제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 요즘 어린이들은 오히려 서양의 움직임과 리듬에 익숙해진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느낌은 낯설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고장 부산의 전통문화인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 야류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대사와 춤, 연기등을 알아보고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게 하고자 한다. 수영야류는 구어체의 여러 가지 대사를 직접 표현해보고 신체적 체험을 통하여 장단과 춤, 연기를 익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기르고 전통 문화 계승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참고사진

